
GE, 대규모 PEI · PC 플랜트 건설

스페인 Cartagena에 PEI 플랜트 건설 ... PC 130만톤으로 확대

GE Plastics이 3억유로(4억1760만달러)를 투자해 스페인 Cartagena 킴플렉스에 대규모 PE(Polyetherimide) 플랜트를 건설하게 된다.

또 2004년 말에는 Cartagena 소재 제 2 차 PC(Polycarbonate) 플랜트의 시범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GE는 인디애나주 Mount Vernon에 PEI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Cartagena 소재 PEI 플랜트는 2007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생산능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PC 플랜트는 당초 2002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PC 시장 둔화로 인해 가동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PC 플랜트는 2005년 초 풀가동에 들어가게 되며 생산능력도 30만톤으로 100%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GE의 PC 생산능력은 총 13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EI는 고부가가치의 비결정성(Amorphous)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 힘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한편, GE는 2003년 4/4분기 들어 플라스틱 시장 여건이 향상되고 있어 4/4분기 영업이익이 약 1억5000만달러로 3/4분기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4년에는 원료코스트 하락 및 판매증가에 힘입어 플라스틱 매출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억-8억달러로 2003년 예상치 4억2000만달러 대비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3/31>